

자금·수출·일자리 전주기 지원...지역경제 버팀목 '우뚝'

광남초대석 이 성 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전남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마케팅, 교육, 컨설팅 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판을 확장시키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을 만나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AI 등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도민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며 상담·알선 1만123건, 취업 1928명의 성과를 거뒀다. 또 월 평균 36만명이 이용하는 일자리정보망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 4회 개최하는 등 구직자와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러한 경진원의 전주기 지원체계가 좋은 평가를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추진방향은. △올해 경진원은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지원 확대, AI 역량 강화를 3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롯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운영해 2000여개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판로, 수출, 컨설팅, AI 전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소개해 달라.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전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올해로 설립 17년째를 맞은 경진원은 중소기업

역대 최대 390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 안정 총력
지난해 수출 1억1200만달러 달성...글로벌 맞춤형 통상 지원
석유화학·철강 등 고용 불안 선제 대응...75억 규모 사업 가동
AI 실무형 인재 2700명 양성...통합특별시 경제 시너지 준비

육성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마케팅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했는데. △지난해 경진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위기 극복,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등 총 4건의 표창을 수상했다.

가장 큰 성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 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27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총 1174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했다.

수출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체 하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수출지원을 실시해 도내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5년 지원기업 수출액은 1억1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주력산업 고용위기 대응과

한 지원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 단계와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 석유화학·철강 등 전남 주력산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위기가 고용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함께 현장 대응력을 높여겠다.

-경기둔화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 방향은.

△올해 경진원은 총 3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해 1300여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청년, 뿌리기업, 혁신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경영 안정자금도 신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을 연 4회 운영해 자금, 수출, 인력 등 기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해결하겠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방향은.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도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진원은 그동안 축적한 수출 지원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준비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 FTA 활용까지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 준비 단계의 기업에는 디자인,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40개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단계별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출상대화, 온라인 마케팅, 바이어 매칭 등 지원을 통해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미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전시회 참가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현장 중심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 전문 컨설팅과 상담, 무역 전문 인재 양성 등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다.

-석유화학·철강 등 전남 주력산업의 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올해 석유화학·철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5개 사업, 총 75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취업·채용 장려, 생활안정, 재취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위기 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겠다.

특히 산업위기가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인력 수요와 근로자의 재취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근로자에게는 상담, 교육, 전직,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고용유지와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지원해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

-AI 확산이 지역 기업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경진원의 AI 정책은.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해 234억원 규모의 지역주도형 AI 사업을 유치했다.

이와 연계해 경진원은 올해 AI 기반 지역인재 양성과 AI·신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순천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도내 대학과 협력해 청년, 재직자,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AI 실무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7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이 AI 기술을 실제 경영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인력 지원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또 전남일자리정보망 내 AI 특화권을 구축해 AI 교육생, AI 기업, 채용정보를 연계하는 전담 채용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AI 교육에서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구인기업 DB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와 기업 간 맞춤형 매칭도 강화해 나가겠다.

-인구 유입·정착이 전남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역에 들어오고,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진원은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귀농산어촌 희망자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서울 양재 aT센터에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운영하며 귀농산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정책 홍보, 수요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남으로의 이주를 고민하는 예비 귀농산어촌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센터를 통해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하고,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마음돌봄 지원사업 등 청년의 생애 주기와 상황, 선호도를 고려한 지원을 추진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출범이 예정돼 있는데, 경진원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계되는 만큼 기업 지원과 일자리 정책이 더욱 확대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에너지 등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지원·인재양성·취업연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기업과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

-도민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경진원은 지난 2009년 설립 후 지금까지 도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경진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재외동포청, 전남도와 함께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과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성희 원장과 함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